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 한지 얼마되지 않은 듯 한데 벌써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의 계절처럼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소망과 평안이 가득 하길 두 손 모읍니다.

사역 소식

현지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이 코로나 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아이들이 조금씩 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낙후된 지역에 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을 도장에서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섬김으로 아이들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와그닷흐 지역 센터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센터에서 쓰던 아이들 책상과 문구류 센터 물건 등이 작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300만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센터가 아이들 교육, 구제 사역, 여성 사역 등 가난한 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민들 또한 다시 센터가 문을 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 소식

아이들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며 지내며 한 턴을 끝내고 봄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저희 부부 건강하게 이곳에서 지내고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센터가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2. 도장의 아이들과 만나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 신뢰가 더욱 깊어지도록
3. 아이들의 학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